

국가방재와 손보산업 발전에 기여할 터

연간 수출입물량으로 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1천억불을 넘어 선진국으로 넘어서는 과정에 있다. 통계(스위스 더 시그마, 세계보험산업조사, '88. 5)에 의하면 손해보험의 규모도 1조2천억원에 달하여 세계 20위권 내의 규모를 갖게 되었다고 한다.

선진국의 보험사업자들은 일찍이 보험가입물건의 과학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방재시험소를 만들어 시험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방재시험소의 형태는 보험의 본 고장인 영국의 경우 지금부터 1천년전인 1889년 F.O.C(Fire Office Committee)가 맨체스터 지하실에서 실시한 스프링클러 성능시험이 그 효시이다. 그후 1947년 정부에서 재원의 50%를 출자하여 순수연구를 함께 하는 JFRO (Joint Fire Research Organization) 를 구성, 정부차원의 순수연구업무를 보험업자 시험



우 무
(방재시험소 개발부장)

소의 기술축적 바탕위에 부가하여 활용케 하였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 분야의 시험업무와 순수연구의 전문분야별 분리운영이 필요하게 되어, 1976년 보험사업자는 시험업무 중심의 시험연구소인 FIRTO (Fire Insurer's Research and Testing Organization)를, 국가에서는 소방연구소인 FRS (Fire Research Station)를 운영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 이들 보험사업자는 교육, 훈련, 홍보, 시험, 인증, 기술지원 등 종합 위험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1986년 보험업자 시험연구소(FIRTO), 화재보험협회(FOC) 및 방화협회(FPA)를 통합, LPC(Loss Prevention Council)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 산하에 손해예방기술센터 (Loss Prevention Technical Center), 손해예방인증원 (Loss Prevention Certification Road) 및 방화협회 (Fire Protection Association)를 두고 적극적인 방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화재와 관련하여 피해액을 포함한 제반 경비는 그 나라 GNP의 약 1%에 해당한다고 한다. 이를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1988년의 GNP 1천5백61억불로 환산하여 약 1조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화재관련 경비는 경제규모의 크기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

로서 화재로 인한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재활동은 이제 경제 성장과 더불어 간과해서는 안될 주요 명제가 되었다.

본 화보험회의 방재활동은 70년대 초 경제규모를 앞지르는 대형화재(서울 대연각호텔화재, 대왕코너화재, 시민회관화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화재에 의한 손실예방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각국의 좋은 형태를 수렴한 선진국형 제도로서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1973년에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홍보, 교육, 보험을 연결하는 화보험회가 방재서비스를 하도록 법제화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이런 제도를 우리나라보다 2년 뒤인 1975년 소방설비 안전점검을 주업무로 하는 소방설비안전센타를 설립 운영하게 하였으며, 소방용 기계기구의 점검업무도 1988년 국가기관에서 민간기관으로 이양하여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나가고 있다.

방재시험소의 설립도 선진국의 요건인 창의적인 기능이 요구되어 시험연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화보험회의 종합방재기능을 보다 확대, 효율적으로 운영

하기 위한 것으로서 1986년 4월 11일 개소하여 3년이 되었다.

그동안 설립목적에 따른 뜻을 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나온 3년은 사회저변에 깔려있는 방재기술을 응집시키는 능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디딤돌이 되었다고 하겠다. 선진공업국의 1백년에 가까운 역사에 비한다면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업무실적을 보면,

- 국가업무대행으로 선박용품에 대한 형식승인 시험업무와 방내화 성능시험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 시험연구업무로는 소화기 등 6개분야에 대한 방화제품 성능시험을 경년제품 중심으로 실시, 국내 방화제품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 우수 방화제품에 대하여 내장재 등 12건의 기술기준을 제정, 동양나이론 등 8개업체 27개 제품에 FILK 인증마크를 부여함으로써 인증업무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 기술정보 보급을 위하여 방재기술 정보회원제를 운영, 89년 2월말 현재 125개 기관 및 기업 또는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총 4천4백95

건의 자료를 학계, 업계, 보험회사 등에 제공하는 등 기술보급의 산실역할을 하여 왔고

- 의뢰시험의 경우 총 8백6건을 실시하여 기술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보, 바닥 등 많은 시험설비를 국내기술에 의해 자체 제작하는 등 시험소의 자립기반 구축과 기술축적을 병행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진보와 보조를 같이하여 손해보험도 국제경쟁의 시대를 맞게 되는 현재의 여건에서 자국의 이익보장을 위한 방재기술의 발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첨단기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신상품의 개발연구에 매출액의 10% 이상을 투자하여 장기적인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한다.

보험상품의 경쟁은 위험관리기법의 경쟁이며, 경쟁자체가 방재기술의 근간으로 변모하여가고 있는 실태로서, 시험소의 업무방향은 방재기술의 기초를 이루는 기술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제품의 안전도를 높혀 이를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FILK 인증제도의 확산, 기술보급 등을 통하여 영국의 DPC나 미국의 UL과 같이 국가 방재와 손해보험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일이다.

이와같은 우리의 꿈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하여는 보다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가적 지원과 관계요로의 보다 많은 성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

